
제 18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및 비전

상부 감독기관의 감찰도 기관내부의 감사도 있으나 마나

인간도 약육강식하는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생존
과 탐욕심 때문에 속임수와 폭력을 행사하며 수십만년
살아왔다. 이러한 인간의 유전인자 속에는 이기심(제7집착
식)이 뿌리 박혀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와 권리, 사회의
정의·평화·번영을 실현코자 하여도 자율적 규제(수양과 양심)
만으로는, 이익·권력의 필연적 타락·부패(Lord Acton)를
예방하기 지남하므로, 반드시 법과 원칙·감찰이라는 타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시민들이 국법을 존중하며 사법
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주인의식과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법교육과 공정성감시운동에 나서고 있다

언론과 민주시민(NGO)들의 공정성
감시(모니터링)가 절실하다

2011년도 수상자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 및 우수상임위원장 수상 소감문

■ 국정감사 모범의원 수상소감

황우여 국회의원 (법제사법위)
박상천 국회의원 (국방위)
김충조 국회의원 (행정안전위)

■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소감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01. 국회운영위원회

이정선 의원 한나라 비례 초선
홍영표 의원 민주당 인천 초선

02.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민주당 전북 초선
정갑윤 의원 한나라 울산 3선

03.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 민주당 대전 3선
박선숙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이진복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04. 기획재정위원회

권경석 의원 한나라 경남 재선
김성식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오제세 의원 민주당 충북 재선

0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박주선 의원 민주당 광주 재선
유기준 의원 한나라 부산 재선

06. 국방위원회

김학송 의원 한나라 경남 3선
서종표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07.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 민주당 경기 재선
장세환 의원 민주당 전북 초선
정수성 의원 한나라 경북 초선

0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김유정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박보환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주광덕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0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 미 래 비례 초선
김재윤 의원 민주당 제주 재선
이철우 의원 한나라 경북 초선
장병완 의원 민주당 광주 초선
전병헌 의원 민주당 서울 재선
전혜숙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허원제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 민주당 전남 초선
김우남 의원 민주당 제주 재선
김효석 의원 민주당 전남 3선
김학용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황영철 의원 한나라 강원 초선

11.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정태근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조경태 의원 민주당 부산 재선
최연희 의원 무소속 강원 4선

12.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민주당 충남 재선
윤석용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이낙연 의원 민주당 전남 3선
전현희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13. 환경노동위원회

손범규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홍희덕 의원 민노당 비례 초선

14.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 민주당 경기 재선
장윤석 의원 한나라 경북 재선
정희수 의원 한나라 경북 재선
홍일표 의원 한나라 인천 초선

15. 여성가족위원회

김옥이 의원 한나라 비례 초선
김혜성 의원 미 래 비례 초선

국감모범의원상

법제사법위원회 황우여 의원



의정활동에 더욱 애쓰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준비가 부족했던 저를 모범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이 주는 의미가 무거워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더 애쓰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지낸 임기 4년을 되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계기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책감사로 규정하여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랜 준비를 통해 적절한 문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음을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하여 이전처럼 국정감사 준비에 철저히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법사위 피감기관들이 실재에 있어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대한 제 지적이 이들 기관이 새롭게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감기간 내내 하루 종일 계속되는 국감 현장에서 모니터링에 집중하셨던 모니터링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대한민국 의회 발전에 크나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기대하며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黃 祐 呂

국감모범의원상

국방위원회 박상천 의원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을 뿐인데, NGO모니터단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어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을 뿐인데, NGO모니터단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어 감사합니다.

올해는 군내 의료사고로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금년 2월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정모 훈련병은 중이염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담당 소대장으로부터 피병이라며 심한 욕설을 듣고 자살했고, 4월에는 노모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날 의무실에서 타이레놀만을 처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염병인 뇌수막염 백신만 맞았어도 피할 수 있는 사망이었습니다. 무기획득사업에 10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장병의 건강을 위한 의료예산은 국방부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대부분 외아들임을 고려할 때, 군 의료사고는 단순한 군의 문제가 아닌 가족이 파괴되는 사회적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어느 부모도 자식을 군에 보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 의료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건강한 병사들을 가진 '강한 군대'가 되고, 병사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군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의 「군 의료체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선부대와 논산훈련소를 방문, 의료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냈으며, 국방부 「군 의료체계보강 추진위원회」의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보완하고 추가사항 등을 수렴하여 가칭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중에 있습니다.

동 법안으로 군인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건강보험이 보장되어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한 전력증강으로 '건강하게 입대한 군인을 건강하게 관리한 후,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박 상 천

국감모범의원상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국회의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결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중 하나입니다.

국정감사가 국정통제기능에 가깝다 할 수 있으나, 면밀히 보면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에 걸친 감시·비판 및 잘못된 적발·시정 효력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국회입법활동과 예·결산심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국회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수상자 개인으로서는 그만큼 의미 있는 자기 확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영예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감NGO모니터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 만큼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전 과정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기관을 감사하기 위해 의원들은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노력을 배가 시켜주고 있는 것이 국민여러분의 시선과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였고, 시찰중심의 감사일정편성으로 여론의 질타도 받았다는 점은, 국회의 반성을 요구하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엄정한 평가에서 제18대국회 4연속 모범의원으로 선정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년 연속 영광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정치를 하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는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대한 채찍성 격려라 생각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忠 兆

우수위원장상

농림수산물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민생 최우선 국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8대 국회 의정활동 4년을 마감하는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신 나누시민 · 화순군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상을 만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과 ‘법률소비자연맹’ 이 중심이 되어 2004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고물가, 고유가, 전세난, FTA 파고 등 사면에서 조여 오는 민생고로 인해 60년대 보릿고개 넘듯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의 삶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세력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민과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더큰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FTA 피해 대책 강구 및 관련법 제·개정 등 농촌회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여야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중견정치인으로서 민생 최우선 국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과 ‘법률소비자연맹’ 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崔 仁 基**

우수위원장상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국회, 현장에서 공부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입니다.

부족한 저를 2년 연속으로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은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해서, 수출과 무역, 에너지와 자원 등 경제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또한 미래 동력을 찾고 육성하는 ‘미래준비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략적 공방보다는 실사구시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토론하는 모범상임위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미 드러난 문제점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이슈를 발굴해내도록 위원회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편중의 경제생태계바로잡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과다한 백화점 입점 수수료, 각종 금융수수료 문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정책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장에 밀착하자’는 원칙을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력거래소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담당자들을 면담하면서 사태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제로상태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상임위원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전후로 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 카드수수료 청문회, 유사석유 근절 청문회, 대기업의 책임강화 공청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미리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면 갈수록, 정책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 현장에서 공부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8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착실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성숙한 토론을 해주신 24명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여러분의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榮 煥

우수위원장상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



국정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실현가능한 해결방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해주시고 우수상임위원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 모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기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노동위원회는 그간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여·야 위원간의 소모적인 정쟁과 파행을 겪어왔는데, 18대 국회 후반기 이후에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는 등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탈바꿈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정책중심, 현장중심의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으며,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환경보전과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실현가능한 해결방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신 여·야 환경노동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1년 최대의 노동현안으로 부상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노사가 합의하도록 이끈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여 옥석을 가려내는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3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국정감사 평가기구로 자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정감사 기간동안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시느라 애쓰신 김대인 상임공동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우수상임위원장을 주신 이유가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국정감사평가회 및 시상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聖 順

우수의원

국회운영 /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 의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 정 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평가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노위, 여가위, 운영위 등 3개의 상임위를 맡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분야를 다뤘지만, 이 중에서도 저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운영위 소관인 국가인권위의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관련 부서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인원 확대를 촉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정책 등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게 주신 이 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李 貞 善**

우수의원

국회운영 /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NGO국감모니터단'이 선정한 2011년도 국감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수고해 주신 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상의 의미가 '격려와 신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하여 내곡동 사저 계획 백지화를 이끌어냈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 환경공단 용역사업의 비리 의혹, DMZ 생태계 훼손 문제를 집중 조명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가장 큰 사회적이슈로 부각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권고안 마련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주신 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홍 영 표

우수의원

국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본질적 목표를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

마라톤 중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언젠가 18대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 묻는 언론인터뷰에서 “49.195Km를 100m 달리기 속도로 뛰는 기분”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무변촌 익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하며 저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입성 첫날, 국회본청 앞 천막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시청광장에서, 용산 참사현장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전국 역전에서 촛불을 들고 노숙을 했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3개의 상임위와 당 대변인, 인사청문특위, 현 정권의 실정에 대응하는 당의 다양한 특위에서 활동하느라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법사위의 성격 탓도 있지만 정치적 검찰수사, 표적감사, 제5차 사법파동 등 이명박 정부와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18대 4번째 국정감사 역시 주제만 달랐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같았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비슷한 도로, 나무, 건물을 계속 보면서 달리면 더욱 피로감을 느낀다지요. 골인지점이 보이지 않지만 달리기를 멈출 수 없는 마라토너와 같은 심정으로 힘겨운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때 시원한 물을 건네주는 손길은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먹기 위해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상을 받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국회의원은 저마다의 목표지점을 향해 더욱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본질적 목표를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겨우 방법을 알 것인데 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李 春 錫**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1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데에 감사드리며, 독려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도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감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아닌 민생 속에서 국정감사를 치루겠다는 다짐과 서민과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입주민을 상대로 자행해왔던 대형건설사의 불공정약관 강요행위’,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필요 주장’, 그리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잇따른 인상을 강행한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준비할 때는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되는 서민의 실정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수국회의원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여당이기 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정감사가 아니라 지적할 것은 야당보다 더욱 호되게 지적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한 축인 책임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는 부담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물론 외교와 금융을 확실히 섭렵하겠다는 열정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마치며, 금융당국은 그 존재이유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어떤 가치와 책임의식을 가지느냐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향배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단언합니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하는 국회의 임무도 막중하다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 계기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鄭 甲 潤

우수의원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



서민과 중산층,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 (대전서갑, 3선)입니다.

201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8대 4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진솔하게 임했다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모두 9차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의정활동을 할수록 국회의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의 성공적 설치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인하요구, 과도한 은행금리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은행 이용자들의 편익을 촉구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부품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가전제품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국정감사기간 중에 시정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 18대 국회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은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가 중심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서민경제안정에 노력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가계부채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수상을 계기로 서민과 중산층,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朴 炳 錫**

우수의원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인 내용이 국정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더구나 4년 연속으로 시민들이 주신 상을 받게 되어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정책 및 정책집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총평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4년의 시간을 부처별로 또는 여러 기관을 함께 다루면서 하루에 주어진 20여분의 질의시간 내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효과적인 질의가 과연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실시한 녹색뉴딜 사업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하고 녹색사업 추진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를 외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들어 심화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했는지와 함께 부적절하게 적용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의 부적절성, 삼성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PF채권 매입 및 대출모집중개수수료 회계기준 처리 문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함께 지난 4년간 서민금융정책, 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등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년간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문제, 보험약관 대출금리 문제, 영업시간외 입금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문제, 서민금융회사의 고정금리 운용 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잡는 박선숙’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던 길을 끝까지 가야 새 길이 보인다”는 마음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인 내용이 국정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점검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박 선 숙

우수의원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출신 이진복입니다.

먼저 ‘국감NGO 모니터단’의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3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해주신 모니터위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들어온 뒤에 항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이면 항상 지역에 머물면서 구민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정부부처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역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묵묵히 행해온 노력들이 ‘4년 연속 국감우수의원’이라는 의미있고 뜻깊은 결과로 후한 평가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배정받았던 ‘정무위원회’에서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난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상임위에서 4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남다른 희열도 교차하는 듯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을 엮그제 같은데 벌써 18대 임기 마지막을 향해달려가고 있습니다. ‘始終如一’(시종여일),이란 말처럼 ‘처음과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18대 임기동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년연속 국감우수의원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수상의 영광과 기쁨을 지역구민과 저를 성원해주신 모든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李 珍 福

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권경석 의원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창원갑 권경석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270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13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20일 동안 국감 현장을 함께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꼼꼼히 평가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귀중한 근거가 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자기성찰과 분발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11년 국정감사에서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방안제시와 세금 징수세액을 늘리는 3대과제 제시, 복지재정의 민간자원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3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국정감사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수의원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피감기관에 대한 단순지적 수준을 넘어,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동안 전 국정감사장을 함께 한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권경석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권 旻 錫

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



초심으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일하라는 의미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식의원입니다.

국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어 4개의 주제를 국정감사 보고서에 담았었습니다.

‘중국경제 바로 알기-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Action Plan’란 주제로 중국발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시적인 문제로는 ‘청년층 고용문제 진단 및 정책방향’과 ‘고령사회의 변화전망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와 전관예우에 대해 지적하는 등 국민들께서 문제된다 생각하는 부분을 짚었던 것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보고서와 국정감사 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18대 마지막 국정감사라 더욱 아쉬움이 큼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기간동안 그간의 의정활동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일하라는 의미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발전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고 평가하며 개인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4년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감사의 말을 아꼈던 부분 이해바라며, 앞으로도 국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해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成 植

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세 의원



중소기업과 공생발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충북 홍덕 갑 국회의원 오세세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1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13년 전통의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각별합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그리고 한국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은 1% 계층의 부의 독점으로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효율, 시장제일주의로 인해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는 탐욕 때문에 결국 경제시스템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의 문제는 정부와 대기업이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마치 공룡처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영역을 침범하는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세를 철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와 복지확대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시장만능주의에 취해 승자독식, 즉 부의 축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생발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20%인 100만 명에 해 현재 100만원 소득을 200만 원으로 올려준다면 약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행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양극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2011년 국정감사활동에 대해 김대인 상임대표님을 비롯해 270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잘 경청해 주시고 높은 평가해 주신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NGO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의 영광을 충북 청주 홍덕 갑 시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吳 濟 世**

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



물렁한 국정감사나 하는 여당위원이 되기 싫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구상찬 의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참으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오랜기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물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네 번째 치렀습니다. 외통위는 상임위 중에 ‘상원 위원회’라고 불릴만큼 다선의원도 많고, 각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다보니 외통위는 흔히 ‘큰 이야기’, ‘이론적 논의’ 등과 같은 논의들도 자주 나오며,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관행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외통위는 북핵, 그랜드 바젠, 6자회담 등 현안에 집중하는 경향을 국정감사에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견제와 난맥상을 짚는데 다소 소홀한 상임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의 안전과 이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Fact에 의존하기 보다는 언론보도와 추측에 의한 가정에 근거한 질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평소 임시회 현안 질문이나 혹은 국감이후에 현안 보고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저도 현안에 대해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는 질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현안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처했습니다. ‘반복된 질문→동일한 답변’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기존의 국정감사의 관례를 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국정감사만큼은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의 행정 난맥상을 파악하고 정책적 오류의 시정이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부처의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점을 짚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를 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렁한 국정감사’나 하는 여당위원이 되기 싫었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랜 시간 수고하신 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기쁨이도 하지만, 우리 강서구민들이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격려해주시는 지역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具 相 燦

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상은 NGO 모니터단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1,000여명의 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과 외교문제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 및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정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 남남갈등 격화, 북한의 중국 예속 심화 등 역대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후퇴했습니다. 외교정책 역시 대미편중외교 심화 등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론에 브레이크를 걸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북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외교부 특채비리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굴욕적인 대미편중외교 시정을 위한 외교정책 기조전환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모니터단 여러분께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시민 및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기쁨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18대 국회 나머지 기간동안도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박 柱 宣

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유기준의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유기준 의원입니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국감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해 주셔서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번 수상을 통해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영광을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상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현안 해결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EU FTA, 한·미 FTA 등 국가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국익을 관철시키고자 국내외를 바쁘게 오가며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해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는 등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 발효된 FTA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FTA 발효국에의 수출 증가율(30%)은 발효전(12.5%)보다 17.5% 증가했고, 또한 FTA 발효국과 연평균 교역 규모는 11.9%에서 24.7%로 12.8% 증가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부 예산중에서 09년 30건(87,622\$), 10년 11건(122,023\$), 11년 415건(22,935\$) 등 총 456건(232,580\$)이 정해진 예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됨을 밝혀내어 향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국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더 배려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俞 奇 濬

우수의원

국방위원회 김학송 의원



모니터단의 적절한 견제와 평가 덕분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유권자 여러분과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시상이지만, 올해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상을 받을 때마다 늘, '과연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하고 반문해 왔습니다. 그렇게 반성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다 보니, 오늘의 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잡힌 평가 덕분에, 나태하지 않고, 그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NGO 모니터단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받은 NGO 모니터단상이 꼭 열 번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NGO 모니터단은 제가 국방위원장이었던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결같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목표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국방은 튼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점검해야 한다'였고,

둘째는, '아무리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된다 해도 구비된 전력이 노후하고 적절하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노후전력 적기 대체 및 운용실태를 개선하자'였으며,

셋째가,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만이 합동성 강화와 강한 군의 지름길이라는 확신으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촉구하자'였습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금씩 우리 국방이 나아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내년에 총선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총선 잘 치르고, 2012년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주신, 김대인 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수상 소감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鶴 松

우수의원

국방위원회 서종표 의원



국방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서종표의원입니다.

지난 13년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빈틈없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관찰·평가해 온 ‘국감NGO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것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안보 강화와 군인복지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논리에 처참히 무너진 국가 안보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현직 군인과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입법과 예산 배정을 통해 군인 복지 증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의정활동 기간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육·해·공군의 전력 증강 등 국방 현안을 비롯한 국방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예를 주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徐 鍾 杓

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1년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평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평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각종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헌신해오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문학진

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의원



국민이 최우선이고, 국민 감동의 정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장세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270여 시민·사회단체와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님들, 그리고 각 분야 평가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매년 가을에 찾아오는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정감사이지만 매년 열릴 때마다 증인채택,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정부와 입법부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파행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국감장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잠들어 있고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수면 위로 꺼내는 성과를 내고,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시는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입니다.

어느덧 국회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새해 예산안 심의와 각종 법안 처리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상을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국민이 최우선이고, 국민 감동의 정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張世煥

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



끝까지 지켜보고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경북 경주 국회의원 정수성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10년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기에 더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용기백배해서 더 노력해달라는 채찍질로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흔히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근 한 달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부처별 기관별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과실(過失)을 바로 잡을 기회가 되어준 국정감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붙여진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여 일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들을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폐기대상 구급차’를 민간에 판매해 재사용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약속받았습니다.

청소년을 도우미 고용하는 유흥업소의 실태와 청소년에 의해 벌어지는 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정책변경을 요구했고, 경찰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사전에 산사태 위험성을 경고 받았음에도 예방공사나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고 있었던 문제점을 단독으로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약속받았습니다.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치며,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짧은 국감은 끝이 났지만, 이번 국감동안에 제기되었던 소관기관의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을 함께 돌며 고생하신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鄭 壽 星

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



현장에서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땀 흘려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였지만, 국민이 부여해 주신 국정감사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상황과 현장수용성 점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방안 강구, 국립대 병원의 부담 진료비 청구 문제점 개선 등 실제 국민여러분들이 생활속에서 느끼고 계시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부풀리기 실태 분석, 사립대학 민자기숙사비의 잘못된 책정방식으로 인한 과다 부담 지적, 장학재단 대출자에 대한 신용유의자 등록유예제도 도입 주장 등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 노력들이 서민가계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평가받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남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이행조치가 미흡하였던 점,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분야에 대한 부족한 예산지원 등 국정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과학정책에 대해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명제를 충족시키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18대국회 기간동안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 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보내드리며, 지금의 마음처럼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땀 흘려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權 泳 臻**

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대국회 종합평가결과 ‘헌정우수상’ 선정에 이어, 2009년부터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렇듯, 저 역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상들 가운데, NGO모니터단의 상이 단연 값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NGO모니터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에 앞서,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 많이 하라는 격려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발하겠습니다.

남은 제18대 임기 동안에도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생하신 평가단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裕 貞

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독 일찍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9월 19일에 시작하여 20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치고 10월 8일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과위의 경우 국감 시작 전 정책국감·민생국감을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국감에 들어가서는 파행을 거듭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네 번째 맞이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지난 4년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以聽得心’의 마음으로 교육현장 답사 및 관계자 면담, 애로사항 청취, 설문 조사 등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테마별 실태조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寸鐵殺人’의 정신으로 정책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매년 국감을 통해 느끼는 점이지만,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소수의 보좌진과 함께 70여개의 기관을 심층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만은 않았고, 늘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오늘의 수상은 지난 4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 저의 보좌진들과 꾸준한 관심과 비판, 질책, 그리고 성실한 모니터링을 해 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박 보 환

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수상의 소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쁨과 동시에 올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일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말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일회성 이벤트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학교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을 하였으며, 교육의 당사자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복귀하여 아동·청소년들을 매일 대면하고 있는 교원과 교직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성범죄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간제교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교권확립 대안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원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가 숨방망이 처벌이어서 내실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여 교권보호와 교권징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제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올해 초 발생했던 카이스트 학생들의 안타까운 자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학술정보문화관 건립을 주장하였습니다. 학생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학교 측의 대처에 대해 성토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아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교육과학관련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점만 제기하고 만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저와 함께 고생해 준 저희 의원실 가족들의 열정과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저를 믿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구리 시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우리 서민들을 두루 살필 줄 아는, 그런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고 분발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朱 光 德

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을동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생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분발하라는 국민의 채찍과 격려로 알고, 항상 낮은 자세로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의 모토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감’으로 삼고, 오로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의 해킹 원인이 SK커뮤니케이션즈 내부의 보안시스템 부실과 개인정보보호의식 부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SK컴즈 대표이사를 국감증인으로 불러 강하게 질타하고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기업이 보유한 국민 개인정보의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인 우리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포상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류수출대상을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독려를 주문하였으며, 소외된 우리 전통 문화예술의 복원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김을동,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나 한결 같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乙 東

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재윤(제주 서귀포)입니다.

먼저 13년 동안 엄정하게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날카로운 평가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여덟 번의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색내기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여, 문화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의 원인인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실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부조리한 정부 행태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감사하게도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사익이나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才 允

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의원



수처작주의 마음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만큼 수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상 중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이 상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이 특별한 이유는 특정단체의 선호도나 단체의 소속감에서 비롯한 수상이 아니라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선정하여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그야말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2011년 국정감사에 대한 칭찬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국정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으로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 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남은 2011년도 다가오는 2011년도 상임위에서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당나라 시대 고승인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隨處作主)’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든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 상의 수상과 함께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처작주’의 마음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李 喆 雨

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



감시와 비판을 넘어 대안제시와 사후처리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장병완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겪은 두번째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은 늘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쓴 노력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국정감사는 1년간 국회의원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감은 말은 상임위원회 소속기관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국회의원의 1년 임기중 가장 바쁘고 비중이 큰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국감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장애인체육회 부패와 인사비리 횡령 문제를 지적해 도가니사태에서 촉발된 우리사회 전반으로 퍼진 도덕성·부패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장애인체육회 사태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와 관련조치들을 행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조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갈등을 빚은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급조된 문화부의 '원효트레일' 사업을 파헤쳐 신뢰성을 잃어버린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중국의 동북공정을 지적하고 이 일에 대한 정부측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눈속임으로 줄이고 있는 TV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내는 성과를 거뒀으며, 'KBS를 비롯한 방송사 취재진 후쿠시마 추가 피폭'에 대해 밝혀내어 관련 취재진들이 재검진을 받는 등의 합당한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유일한 문방위원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과 CT연구원 설립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제시에도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와 비판을 넘어 대안제시와 사후처리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답변과 개선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張秉浣

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의 현장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에도 4년 연속으로 국감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국민들을 위해 뛰었던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노력을 국민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2011년 국정감사는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감사’라는 기조 속에 ‘민생, 정책, 대안 국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민생 속에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인근 문화재 현장조사, 주말리그제 시행 2주년에 따른 설문조사 등은 현장을 발로 뛰며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미지급금 88억, 대기업제품보다 더 비싼 보급형 디지털TV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미디어·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자칫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식적인 국정감사 일정은 끝이 났지만, 국회의원 전병헌의 국정감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했던 사안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꼼꼼히 챙기며, 대안으로 제시했던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국정감사 당시 글로벌스탠다드 없이 표류하고 있는 오픈마켓게임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는데, 국감이후 앱스토어 게임카테고리가 열렸고, 구글과의 협의도 거의 막바지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조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휴대폰 전자파 등급 부착 등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도 마쳤습니다.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제도가 일회성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국회의원이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 나가면, 이렇듯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매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田 炳 憲

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해숙 의원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더 따뜻한 정치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전해숙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권위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저를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국정감사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런 큰 영광이 주어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들려 두 어깨가 절로 무거워 집니다.

오늘 주어진 이 상의 의미를 잊지않고 올 해 국정감사의 4대기조였던 '생활국감', '국민국감', '현장국감', '책임국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더 따뜻한 정치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내내 국회에서, 해당 정부부처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신 1천여 모니터위원님들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방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신 평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국회의 발전과 강화를 바라는 건전한 비판자이자 든든한 우군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全 惠 淑

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마음으로 말하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국민의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甲 출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 허원제입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올해 또 다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감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느라 애쓰신 270여 시민·사회단체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전문 평가위원님들 그 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있는 국정감사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술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정부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우리 국민들의 시각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그 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밝혀낸 사안들이 어떻게 시정조치 되었고, 국민생활에 편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군 입대자들에게 부과되던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에 대한 과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부로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아날로그 직접수신가구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데, 아날로그 직접수신 100만 가구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아 보편적 시청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정책을 수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과도한 송출수수료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한다는 TV홈쇼핑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송출수수료 상한선 설정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BS 불용교재 발생량을 줄이고, 이익분으로 수능교재 무상지원 확대하고, KBS가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는 청정 방송으로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매체가 되기 위해 단계적으로 광고 폐지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생활에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를 독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 감사를 실천하기위해 노력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산적인 현안과 최우선적으로 헤아리고 집중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돌봐야 하지만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국회에서 법제도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일들,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산적인 현안과 최우선적으로 헤아리고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마음으로 말하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許 元 齊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



농수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국회의원입니다.

제18대 국회에서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1년 금년까지 3차례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먼저 저의 고향 지역구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2011년 국정감사는 이번 18대 국회 4년을 마무리하는 국정감사이며, 이명박 정부의 농정을 총평가하는 정책감사였습니다. 어려운 농업인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민생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주력하였는데, 이러한 저의 노력을 NGO모니터단에서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우윳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면서, 앞담배 농가의 수매가 인상을 성사시켜 성과가 컸으며, 인삼수매가 인상은 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성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지역 최대 관심사인 ‘간척농지에 수도작 이외 타작물재배 권장’은 염분이 많아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 농수산업의 피해를 분석하였고, 농산물 가격 상승이 고물가 주범이라고 무차별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MB정부 농정에서는 농수산업과 농어업인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과 ‘간척농지 영농실태 및 향후 활용방안’ 자료집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고통을 살피드리고,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으며, 애환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우리 농수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瑛 錄

우수의원

농림수산물위원회 김우남 의원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써 맡은바 책무를 다한다는 사명감에서 국정감사에 열심히 임한 것뿐인데 2011년에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3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해 농업인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하는 농협중앙회가 수입산 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키거나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문제를 지적하며 농협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업체의 위생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을 밝혀내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의 결산내역을 근거로 산림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오늘의 수상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제주도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宇 南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국감, 끝까지 국정감사장을 지키는 성실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그리고 지난해 제기했던 문제들과 정책대안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일회성 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과 각종 가공식품들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한미FTA 문제 등 농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날들에 대한 칭찬이라 여기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學容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의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위·의성·청송군 국회의원 정해걸입니다.

먼저 13년 전통에 빛나는 ‘국감NGO모니터단’에서 3년연속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 헌정대상 수상에 이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되어서 제게는 더욱 의미가 깊게 느껴집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201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국민민복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18대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일이란 길지 않은 시간동안 농식품위에 속한 9개 기관과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되고 대안이 마련되어 농어민의 삶의 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볼 때면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2011년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18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사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丁 海 杰

우수의원

농림수산물위원회 황영철 의원



우리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 국회의원 황영철입니다.

먼저, 저를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감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국정감사 전 과정에서 함께 고생해주신 모니터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처음 등원할 때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로 가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비교적 비인기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만 4년간 활동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라 생각되어 이 상의 의미가 더욱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일한 것 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채찍으로 생각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남은기간 동안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셨던 홍천, 횡성 지역 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黃 永 哲**

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



항상 어렵고 힘든 서민을 위해 함께 울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치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회의원 이상으로 모니터링에 수고하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이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꾸준한 활동은 나날이 높아져가는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하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우 의미가 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순환정전 사태, 유사석유주유소 폭발과 화재 사고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이슈가 많아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무 행정관청의 소통 부재와 무원칙적인 일처리 때문에 국민이 보호받기보다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우선으로 하고, 상투적인 개선 요구를 하기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수상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더욱 잘 감시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항상 어렵고 힘든 서민을 위해 함께 울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박민식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朴 敏 植**

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



올 한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북갑 출신 국회의원 정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을 알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자평하자면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는 실속이 없다고 보도되었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면 매우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경우 4년 동안 지식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마무리 짓고 새롭게 제기된 현안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찬찬히 들여다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했던 내용을 대정부질문, 법률안개정, 예산안 과정 속에서 반영시켜서 최대한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고 국민 여러분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지만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중소기업 및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올초부터 대중소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대기업 MRO의 시장철수를 이끌어 냈고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기업 SI업체 독점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법률안을 내는 등 올 한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의 경우 감사 직전인 9월 15일 전국적인 단전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장 주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9.15단전사태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단전의 원인 및 문제점, 대안 등을 꼼꼼히 제시했다는 평가받았고 그외에도 제2의 SSM, 농협 하나로 마트를 SSM규제대상에 포함 필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택배시스템 적극 지원 요구, 주유소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유사석유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이를 단속하자 더 큰 사이트로 숨어드는 문제,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대책 및 러시아 PNG 도입문제, 석유공사의 성공불용자 문제, 지경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R&D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최근 단전사태의 문제점과 대안> 외에도 <녹색성장에서 녹색발전으로>, <지구를 지키는 뽀로로(만화 자료집 1탄)>, <중소소상공인 살리기 5대과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지구를 지키는 디보(만화 자료집 2탄)> 등 총 6권의 자료집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국회는 한창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문제로 여야간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기일을 맞춰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한-미 FTA 비준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합의를 통한 정상적 방법으로 통과되길 바라며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한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鄭 泰 根

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



일 열심히 하는 조경태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 민주당 국회의원 조경태입니다.

먼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신 270여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에게 이런 수상의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때면, 넓지 않은 회의장의 한모퉁이 좌석에서 열심히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뵈곤 했습니다. 그 분들의 눈빛은 질의하는 의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 한분 한분이 저의 국정감사 활동을 주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며, 질의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싣게 했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마지막 국정감사 때에도 이상을 수상했었는데, 이번 18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도 이렇게 영광을 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상을 받게 되니, 제 스스로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것 같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저런 상을 수상했지만, 가장 기분좋은 상은 국민들이 주시는 상입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상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상으로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정부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조경태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趙慶泰

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최연희 의원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올해도 국정감사 평가를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처럼 명예로운 수상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열번째로 받게되는 값진 상으로, 특히 지난 6월 헌정상 수상에 이어 제18대 국회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그 감회가 남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치러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온 현장정치와 실천정치의 소신이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주의 성숙과 의회발전에 앞장서 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권위와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큰 명예로움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10여년의 의정활동기간 내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소명이 무엇인지, 늘 스스로 자문하고 그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정치’라는 의정활동의 대원칙을 세웠고, 이를 지키기 위해 늘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18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사명,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된 여러 의원님들의 더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崔 鉛 熙**

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사회적 약자들의 배려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양승조입니다.

저에게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건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년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보다 충실해지고 국정감사의 품격이 높아졌다고 저 스스로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KTX를 타고 지역구인 천안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며 소외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약자의 배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지역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원칙과 성실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의 좌우명처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전해주시는 현장의 말씀들과 제가 그 동안 생각해왔던 정책들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보니 여러 시민단체들과 단체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처럼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정책이 추진되고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의 배려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梁 承 晁**

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



나라의 정책 주치의로서 항상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서울 강동을) 윤석용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매우 신중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이 부여한 이러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시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이번 2011년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4년간의 국감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안과 민생현안, 건강안전 등의 대책마련에 4가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회 차별적 요소와 불공정 부정사례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새나가지 않았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건강안전을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시정하였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의사입니다.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제 천직으로 여기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부정부패 등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사회는 결국 그 병이 깊고, 넓어져 모두가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사회와 국가가 다수의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단 한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와 국가의 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져 나갈 수 있도록, 나라의 정책 주치의로서 항상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尹 碩 鎔**

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



국정감사야말로 가장 국회답고 의원다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믿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래 여덟 번째 수상이고, 당의 대변인과 사무총장으로 일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계속된 영광입니다.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고맙게 받겠습니다.

저는 올해 조금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도전은 작년 국감이 끝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시국감입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 중 3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을 감사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의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지만, 모든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기에는 턱없이 짧습니다. 그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부가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원과 보좌진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시국감이 끝나고 나면 늘 상시국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혼자서 상시국감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정책과 예산의 집행을 작년 국정감사 이후 꾸준히 감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그때그때 알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완해 상임위에서 정부에 질의하고,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노인고독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데 따라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요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이물 발표를 정례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좀 더 안전한 식품을 드시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의 법안 제출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시국감은 상시국감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집행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서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유령연금 수급, 병원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실태,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입니다. 저는 국정감사야말로 가장 국회답고 의원다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주어저 국정감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 저에게 상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NGO 모니터단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보내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李 洛 淵

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권위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상인 국감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며,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국정감사 일정에도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관심으로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고 고견을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활동은 공정성 감시와 정의구현,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가장 선진적인 시민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8대 국회에서 국민의 선량(選良)으로 봉사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지만, ‘국회의원 전현희’를 있게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그리고 함께고민하고, 고생해온 의원실의 보좌진들과도 수상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全 賢 姬

우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손범규 의원



청년들이 올바른 인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수많은 상이 있지만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이 상을 수상하는 것은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공신력을 갖춘 시민의 대표가 선정해 주신 것이므로 더욱 더 의미가 각별합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서 다각도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수정·보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및 실제 겪는 고충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니터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국민들의 성원에 힘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소외받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생국회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청년들이 올바른 인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기간동안 국감 현장에서 꼼꼼히 평가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를 더욱 잘하라는 채찍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孫 範 奎**

우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



국정감사에서 연구하고 발굴한 정책대안이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입니다.

제가 올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날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 그리고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감사로, 저 역시 한 회기를 정리하는 정리 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국정감사가 단타성·일회성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날카로운 비판과 대책 마련과 함께 실제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현재의 정책 변화 정도를 점검하였으며,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18대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는 것을 고려하여 올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도 있었습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거나, 취업성공패키지·글로벌 취업·골프장 건설 문제와 같이 10월 중에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발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강·노동자 안전과 밀접한 석면과 관련하여서는 지적 당일 즉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많은 위원님들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관심 속에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연구하고 발굴한 정책 대안이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洪 熙 德

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김희철 의원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와 국민 앞에 선서를 한 것이 바로 어제 일만 같은데 벌써 제 18대 국회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제18대 국회동안 3번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의 미약한 국정감사활동이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저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진들의 업무역량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4월부터 정기적으로 공부모임을 개최하여 국회 보좌진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노력했고, 그 결과 214페이지 분량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단순히 피감기관을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고치는 입법제안 등 후속대책이 있는 국정감사를 하자고 마음먹고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모니터해 주고 지적해주시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대표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熙 喆

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



끝까지 지켜보고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우선, 지난 한 달여간 수고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5대 국회부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와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밑거름을 마련해주신 270여개 NGO단체 의 진심어린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력이 국정감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엄정한 국정감사 모니터·평가 결과로 우수의원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한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면서도 국정감사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죽집게 국감 위원’, ‘국감스타’ 등으로 불릴 만큼 사실에 입각한 날카로운 지적들을 쏟아내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성과를 조금이나마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맹독성 제초제 도로·철도변 무분별한 살포문제, 스크린도어 설치문제, 고속도로 적재불량 대책 등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께 다가가는, 국민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국정감사에 반영하여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눈을 대신하여 구석구석 충실하게 지켜봐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 덕분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소관기관의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2009년,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과 저를 응원해주신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우수의원상이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채찍과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매진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박 기 춘

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장윤석 의원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쉽없는 정책 개발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수여되는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신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는 무거운 명령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이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행정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년 국정감사에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을 두어 불법 건물 목 철거 및 불합리한 영농보상비 제도 보완, 임대보증금보험 미가입 현황 공개 등 국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을 국민의 일꾼으로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과 격려의 뜻으로 받들어 고향 영주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쉽없는 정책 개발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감우수의원 선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NGO 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재차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張 倫 碩

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고자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도 들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정진했습니다.

국정감사 또한 소홀함이 없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금자탑을 쌓은 듯해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로 국민의 시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민생 정책을 선보였고, 각종 언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처 역시 향후 사업 추진 및 시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단지 보여주기식의 포퓰리즘 행태보다는 정책국감의 모범을 실천해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일부 이행사항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모니터단 자원봉사자 여러분, 김대인 상임공동단장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鄭 熙 秀

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홍일표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우수의원 상을 3년 연속하여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하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과 그 동안의 국정감사기간동안 함께 고생하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일 동안 이뤄지는 국정감사는 시간적 한계와 국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조사가 미흡하고, 형식적 절차진행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해결의 중심적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는 대정부 통제 역할도 있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사의 소재를 밝혀 행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국정감사는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민생 국감', 국토해양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국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국감'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쉽고 미진했던 점도 있겠지만, 국정감사를 계기로 발굴하고 제시한 각종 정책대안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귀중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특히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洪 日 杓

우수의원

여성가족 /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



정부의 개선 노력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입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3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4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노고가 많으셨던 모니터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상은 앞으로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감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격려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지원 단체에 대한 사전조사는 물론 사후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공동협력사업 단체에 대한 사전조사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실제점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여성의원 현황 및 관련 정책들을 조사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광주 인화학교사건에서처럼 성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성범죄 관련 법원의 양형기준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부의 개선 노력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했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는 과분한 상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玉伊

우수의원

여성가족 / 기획재정위원회 김혜성 의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서 후 그렇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18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평범했지만 진심을 담았던 인사말에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으로부터 수상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공인받은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의원 金 惠 聖